아빠와 함께 춤을

(갈2:1~10)

1. 십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빠와 함께 춤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아빠와 함께 춤을!
서양영화를 보면 이 사람들의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춤을 추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춤추는 장면 속에서 아주 이 마음이 뭐랄까, 흐뭇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재미있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어린 딸들을 아빠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아니면 삼촌이나 다가 와가지고, 달랑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는 춤추는 자세로 쭉 뻗어서 잡고, 아이들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동동 하늘에 떠 있는 채로 춤을 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발을 보면 흐느적거리면서, 그 아빠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맞추어서 움직이게 되지요.
이게 바로 '아빠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교회의 율법주의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받아서 전해준, 당사자인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이 모세는 결코 성경 상에서 볼 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모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어기지도 않았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춘 자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자기를 얹어놓고, 그 하나님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지, 그는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화된 객관적으로 내 앞에 제시되고 있는 어떤 행동의 원칙을 따라서 움직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화된 원칙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과 밀착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보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문자화된 율법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틈새가 없었습니다.
그런 공간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밀착의 정도가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었을지언정, 율법을 지키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움직임에 얹어 놓고 움직였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 바깥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주제거든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 한 것이에요.
그런 예를 또 하나 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정에 서게 될 때,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 재판정에서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너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춤을 추실 때는, 성령님과 내가 껴안고 있는 그 사이로, 법정에 서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답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대화의 기술,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죄 사함과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합.
그렇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연합이 이루어진 틈바구니 안

으로는 그 어떠한 행동을 위한 원칙과 규정과, 율법과 규례나 뭐 강령도 끼어들 틈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라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모든 부담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오늘 5절 말씀 속에 있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뭐 뭐 해야 한다는 모든 행동에 대한 부담과 의무감으로부터의 자유.
그렇다고 행동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과 자기가 전한 복음의 유일한 참됨과 진리 됨을, 계속 주장해 나가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AD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1차 총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상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방인에게 율법과 율법준수와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합의점을 이루어 냅니다.
그리고 그 1차 회의 때,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인 것처럼 사도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인준합니다.
이렇게 다 정식 절차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미 합의되고 인정되고 확인 된 사실인데, 이제 와서 갈라디아교회 안으로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거짓 그리스도인이 들어와 가지고는,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느냐, 결국 그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를 예수님에 대한 신앙체계 안에 끌어 들임으로써 나타나는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말살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허락하는 진리 안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얘기에요.
복음을 완전히 무효화 시켜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도대체 이 자유,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
복음 안에서 우리게 주어지는 자유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선언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 교부께서 해주신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하아! 멋진 말이에요 정말, 어거스틴의 그 신앙의 깊이와 경지를 한 마디로 알 수 있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이 어거스틴의 말 대로,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돼요.
절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단, 마음대로 하기 전에, 그 앞에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엔 진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고, 믿음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이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려 하고, 만족하려 했던 것이 죄악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간음입니다.
그걸 용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이제 네가 나와만 사랑의 관계 기쁨과 만족의 관계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이제,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부족함이 느껴지고 무엇 무엇을 갖고 싶다는 소원이 생길 때마다, 그 소원을 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 환전합니다.
어떻게 환전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빽 하나를 갖고 싶다 명품빽을.
'아, 빽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충분히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 부족함에 대한 느낌이 빽을 갖고 싶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 이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야 만족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내 마음속에 지금 충분히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부족을 느끼면서 그 부족이 자식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다 환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원들에 대해서 십자가 붙잡고 죽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것이고, 날마다 세상 소원에 대해 죽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기쁘게 될 때에, 그 이후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쁜 상태가 바로 어린 딸이 아빠의 품에 안겨서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만족해져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음상태가 된 이후로는, 절대 평강의 이후, 샬롬 이후 상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딸을 품에 안은 아버지가 움직이듯이, 춤을 추듯이, 그러면 딸은 그 아버지의 움직임에 얹혀서 움직여 나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주의자들은 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왜 내가 율법과 원칙과 강령과 규정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얽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행동이 규정이 됩니다.
여러분 얽매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이 시대에 얽매임이라는 단어와 관계돼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법정스님의 무소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소유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잖아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좋은 난 화분을 두 개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얻어서 정성껏 기르십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모~든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난초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난초화분을 아는 분에게 줘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짐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를 비움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시고 이 수필을 쓰신 것이지요.

우리가 자꾸 어떤 행동에 매이는 것은, 난초를 돌봐야 하고, 해가 나게 되면 직사광선은 피하되 어쨌든 해가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곳에 몇 시간 놔둬야 하고, 밤이 되면 또 들여야 되고, 물은 얼마 만에 줘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이유가, 그 난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행동원칙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꽃피우고 싶으면, 낙오자가 되지 말아야지,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해야 된다고 하는 행동의 부담을 안고 살게 됩니다.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평생 이렇게 내 마음이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바람에,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평생을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상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내가 뭐를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행동에 대한 강박관념.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그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행동에 대한 강박관념이 나온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 안으로 모셔 들이게끔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모든 것에 대해 죽으니까.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모~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방금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의 리듬을 따라서 춤을 추십니다.
하나님이 춤을 추실 때, 우리가 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먹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밥을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밥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머니만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때 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내가 밥을 하러 나가기 이전에 이미 잠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심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나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 죽어요? 내가 밥을 해야 된다는 이 행동 규정에 대해서도 죽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행동 규정에 대해서도 내가 죽는 거예요.
얽매이지 마세요.
먼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고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30분 1시간 기도하면, 또 아침에 가능하면 '오늘의 번제'같이 이렇게 십자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갖고 하루를 출발하면, 나머지 23시간은 다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시간 할애를 못해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끼어 안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24시간 뭐뭐 해야 된다는 행동에 대한 강박관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것조차도, 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는 것조차도 잠을 자야한다는 원칙과 행동 규정이 되어서, 나를 압박하고 그 압박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쉬는 것도, 쉬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그 규정을 따라가 쉬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시간이 얽매이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1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것들을 몰아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어린 딸이 되면, 그러면 하루 종일 나머지 23시간은 하나님 아빠가 당신의 계획을 따라 춤을 추시는 그 춤을 따라서 나는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규정도 우리를 얽매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면서 나타나는 리듬에 따른 행동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압니까?
내 마음이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절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야만 주어지는 것이니까, 절대기쁨 절대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내가 아무 소원이 없는 상태가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소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대단한 수련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이고 복음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무리 무학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등한 세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낮은 신분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나면, 하나님께 가는 그 십자가 기도시간이 24시간 지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나면,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나를 껴안고.

그러니까 내 스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텝이라는 게 뭡니까? 발로 땅을 딛고 있을 때, 스텝이 필요합니다.
스텝 없는 춤을 추는 거예요, 스텝 없는 춤을.
하나님께서 땅을 밟고, 나를 껴안고 달랑 들어서 춤을 추십니다.
이런 삶, 이게 바로 기도교인의 자유의 삶인데, 자꾸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뭐뭐 하면~, 충성하면, 봉사하면, 열심히 출석하면, 헌금생활하면… 뭐뭐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로 묶어 버리려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떡하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든지 죽고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껴안는 어린 딸이 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교회 봉사도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리듬을 따라 하게 될 것이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춤의 리듬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인들이 될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춤추는 그 리듬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봐요.
기가 막힌 광경 아닙니까? 기가 막힌 광경 아닙니까?
발들은 다 땅 위에서 떨어져서, 대롱대롱 허공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꼭~ 끼어 안겨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춤판, 그런 무도회장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언제나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현장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모든 것에 대해 죽음으로써, 행동에 대한 강박관념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으로써, 아빠의 품에 안긴 딸처럼 되어서,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